

## 제 2 강 고대 그리스철학 2 : 아리스토텔레스와 헬레니즘철학

### §. 아리스토텔레스

- 실체와 속성, 질료와 형상, 현실태와 가능태

### §. 강의 메모

- 아리스토텔레스: 삼단논법의 논리학 정초
- 판단간의 관계를 따지는 것(명제=판단의 의미)



### cf. 논리학의 네 가지 명제: <S는 P이다>

- A: 모든 S는 P이다 / 전칭 긍정 판단
- E: 모든 S는 P가 아니다 / 전칭 부정 판단
- I: 어떤 S는 P이다 / 특칭 긍정 판단
- O: 어떤 S는 P가 아니다 / 특칭 부정 판단

→ 판단은 사태(Sachverhalt,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다: 술어적 판단

### 1. 실체와 속성의 구분: 분필의 예

이것은 기다랗다.  
이것은 희다.  
이것은 원통형이다.  
이것은 물에 잘 젖는다.  
이것은 잘 부러진다.  
이것은 단단한 것과 마찰하면 흔적을 잘 남긴다.

여기에서 주어에 해당되는 <이것>은 실체고, 술어에 해당되는 <기다랗>, <희>, <원통형임>, <물에 잘 젖음>, <잘 부러짐>, <단단한 것과 마찰하면 흔적을 잘 남김> 등은 속성이다. 모든 물건들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 구조를 언어를 통해 표현할 때, 실체를 지칭하는 주어가 생겨나고, 속성을 지칭하는 술어가 생겨난다.

구체적이고 개체적인 사물을 일컬어 **우시아(ousia, 존재하는 것)**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시아는 실체와 속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 이 우시아를 실체라고 할 수도 있다.

cf. 영국 철학자 버클리의 경우

- "사물은 관념들의 다발이다.": 감각적 내용=hypokeimenon(基體) 또는 실체
- 경험론, 감각론

## 2. 실체(우시아)에 대한 네 가지 접근 통로

- ① 그것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질료 또는 질료인(質料因)
- ② 그것은 무엇인가? 형상 또는 형상인(形相因)
- ③ 그것은 무엇이 만들었는가? 작용 또는 능동인(能動因)
- ④ 그것은 무엇에 유용한가? 목적 또는 목적인(目的因)



cf. 앞의 의미: 형상(eidos → essence)을 안다는 것

이 네 가지 원인(aitia)을 두고서 흔히 사원인설(四原因說)이라 한다. 어떤 구체적이고 개체적인 것이든 이 네 가지를 탐구하면 그것에 대해 올바르게 탐구하는 셈이다.

- 질료 hyle / 형상 eidos / 작용 kinoun / 목적 telos

kausa materialis,  
kausa formalis,  
kausa efficiens,  
kausa finalis

## 3. 실체적(본질적) 형상과 우연적 형상

### 1) 형상과 질료의 구분

이것은 석고로 되어 있다.

이것은 철판에 글을 쓰기 위한 것이다.

→ 이것은 단단한 것과 마찰하면 흔적을 잘 남긴다.

① '이것'이라 지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질료가 있어야 한다.

(**"질료는 개별화의 원리다."**)

② 그냥 '이것'은 없다. 항상 '무엇인 이것' 또는 '이 무엇'으로서 '이것'은 존재한다. '아무 것도 아닌 이것'은 없다.

## 2) 순수 질료와 순수 형상

- 전혀 형상을 지니고 있지 않은 질료 상태 - 플라톤의 생성
- 질료라고는 전혀 없는 형상의 상태 - 플라톤의 이데아

cf. 질료와 형상의 관계

- 플라톤: "이데아는 질료가 없다." / "분필이란 개념은 질료가 없다."
- 아리스토텔레스: 형상(eidos)은 반드시 질료와 붙어 있다.

## 헬레니즘 철학 : 에피쿠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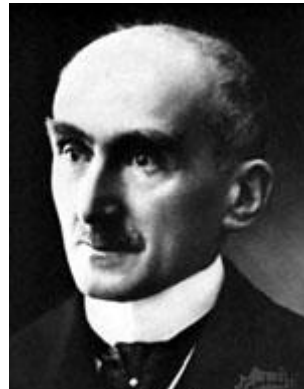
### §.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 §. 강의 메모

- 아리스토텔레스: 삼단논법의 논리학 정초
- 판단간의 관계를 따지는 것(명제=판단의 의미)

cf. 시물라크르의 문제

- 원본 없는 복사품
-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물라크르관(觀)
- 시물라크르 자체가 참 존재이다: 결국 버클리 같은 영국 경험론으로의 회귀
- 베르그송/틀뢰즈, "온 우주는 이마주로 이루어져 있다."



베르그송

#### 1. 세상이 어지러울 때

- hellenic: 그리스의
- hellenistic: 헬레니즘적인
- <행복>의 문제: 윤리학의 영역



알렉산더대왕

유럽과 아프리카 북부를 휩쓸었던 알렉산더 대왕,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기원전 323년에 죽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이듬해, 그러니까 기원전 322년에 죽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에서 아테네는 도시 국가로서의 위대한 면모를 상실하고 서서히 로마가 힘을 발휘하면서 고대 유럽은 대혼란의 시기에 빠져듭니다. 말하자면, 역사가 대대적으로 소용돌이치면서 어느 누구도 삶에 대해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기 힘들게

된 것이지요. 이때, 고대 그리스의 철학(hellenic philosophy)의 시대가 끝나고 이른바 헬레니즘 철학(hellenistic philosophy)의 시대가 막을 열게 됩니다.

헬레니즘 철학은 마치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처럼 수많은 정치 체제가 난립하면서 가치관의 혼란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죽음에서 비롯되는 공포와 불안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것인가를 모색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후대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흔히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로,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로 구분되지만, 그것은 근본 정신을 일컬어 하는 말일 뿐,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둘 다 금욕적인 삶을 실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2. 에피쿠로스 학파

- 문명 자체에 적대감
- 유물론적 원자론(데모크리스트 Democritos)
- 에피쿠로스 "영혼은 원자이다." / "만물은 원자들의 맹목적인 이합집산의 소산이다."
- 기계론
- 놀라운 우연: 인간
- 만약의 근원: 사유재산 및 신에 대한 관념



에피쿠로스

에피쿠로스(Epicurus, 341-270 B.C.)라는 철학자가 에피쿠로스 학파의 창시자입니다. 그의 가르침의 핵심은 "**초야에 묻혀 살아가**"라는 명제로 압축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권력과 명예와 부를 좇은 삶을 살다가는 참다운 쾌락을 얻지 못하고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명제입니다. 그러한 사회적인 가치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갈등과 투쟁에 의해 온갖 고통에 시달리게 되니 아예 초야에 묻혀 지내면서 아예 욕망의 폭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성취/야망>인데, 여기에서 성취의 몫을 크게 할 것이 아니라 야망의 몫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행복의 몫이 커진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스토아 학파처럼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에피쿠로스는 자연을 인간에 대해 적의에 차 있고 생소하며 사나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어떤 자연 속에도 존재하지 않는 자기 자신만의 평정을 개발하도록 권유했습니다. 냉담함 속에서 자기 자신만이 특별하게 누릴 수 있는 쾌락을 추구한 셈입니다. 에피쿠로스의 이러한 인생관은 그저 사회적인 한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한 존재론적인 기반, 즉 원자론적이고 유물론적인 존재론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매력 있는 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피쿠로스의 이러한 사상은 그의 사상에 완전히 매료된 후대의 로마 사상가 루크레티우스(Lucretius, 96-55 B.C.)에 의해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De Rerum Natura)라는 제목의 시집으로 꾸며졌습니다. 루크레티우스는 늘 광기의 공포에 휩싸여 있다가 결국은 자살하고 만 인물이어서 에피쿠로스의 사상을 몸소 실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이 작품은 에피쿠로스의 사상을 로마 문화에 접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책은 에피쿠로스의 사상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 중세 때에는 무정부주의로 낙인찍혀 금서에 올랐지만, 기계론적인 근대 과학이 발원하면서 휴머니즘이 태동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모크리토스

그도 그럴 것이 에피쿠로스주의는 철저히 기계론적인 유물론적인 원자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존재론은 본래 데모크리토스(Democritus, 460-360 B.C.)에 의한 것입니다. 이는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우연적인 원자들과 그 원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운동할 수 있는 빈 공간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윤리학적인 차원으로 바꾼 것이 에피쿠로스라 하겠습니다.

자연에는 아무런 목적도 계획도 없고, 만물이 생성하는 것은 물질 자체의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든가, 아니면 예측할 수 없는 맹목적인 우연에 의거해서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이 근본적인 사태이기 때문에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특별히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덧없는 것이고, 현실의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우연에 불과한 것으로 됩니다. 에피쿠로스주의에 따르면, 영혼조차 공기, 숨, 열의 원자 및 알 수 없는 제 4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네 원자들이 결합되면 영혼이 생겨나고 해체되면 영혼은 소멸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체된 원자들은 영원히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이 정도쯤 되면 삶에 대한 태도 역시 특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우연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인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 종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정말 놀랄 만한 우연의 산물이라고 여깁니다. 번개에서 불을 얻어 활용할 줄 알고, 목소리를 언어로 정교하게 만들고, 급기야 문명을 일구어내는 힘을 지닌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사유재산 제도를 만들고 특히 금을 부의 기본으로 여기는 습성을 획득한 탓에 온갖 불행의 씨앗인 야심, 탐욕, 전쟁, 범죄 등의 악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적인 제도와 관습으로부터 벗어나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초야의 사상이 나오는 것이지요.

특기할 것은 이러한 존재론의 결과 루크레티우스에서 나타나는 에피쿠로스주의는 신이라든가 불사의 영혼이라든가 천국이나 지옥과 같은 내세 등의 생각을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을 아주 불행한 것으로 여겼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종교란 인간의 불안이나 그에 따르는 온갖 공포심을 조장하는 최대의 원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받는 최악의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주의가 왜 인본주의의 근간이 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된 에피쿠로스의 유명한 명제는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살아 있을 동안 최대한의 행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크레티우스에 의하면, 만물이 생성하고 만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의지를 지니지 않은 원자들의 이합집산에 의한 것이고, 이성이란 바로 이러한 사실은 뼈 속 깊이 깨닫고 그에 따라 삶을 영위하는 능력이라는 것이고,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그 어떤 결핍도 느끼지 않고 평화로운 항상심(恒常心)으로 만사를 즐기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냉혹할 정도로 초월적인 가치들을 완전히 잘라버림으로써 우리의 삶이 지닌 근본적인 한계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동시에 그러한 초월적인 가치를 억지로 만들어 유지되는 문명 사회의 굴레를 벗어나서 초연한 쾌락의 삶을 추구함으로써 주어진 삶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상입니다.

